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2.17)

1. 한・일 국장급 협의 관련

□ [동향(협의 결과)][1)]

○ 12월 16일 한일 양국은 통상부처간 국장급 협의(제7회 수출관리 정책대화)를 개최, ① 민감(품목) 기술관리를 둘러싼 현황 및 과제, ② 한일 양국의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(경제산업성 발표)

- 카지야마(梶山)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수출관리제도의 운용에 대한 논의로 ①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, ② 특정 품목이 리스트 규제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 등이 다루어졌다고 발표

- 또한 양국은 향후에도 서로간의 책임과 재량하에 실질적인 수출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

○ 한편 한일 양국은 서로 간의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에 대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, 향후에도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관리 정책대화 및 의사소통을 지속하는 데 합의

- 8회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가까운 장래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○ 카지야마(梶山)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협의 종료 후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재검토(철회)할지 여부를 양국 간 대화를 쌓은 뒤 판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발언[2)]

- 일본 언론(NHK)은 이번 정책 대화로 한일 양국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지만,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어서 대화를 지속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보도

---

1) 経済産業省(2019. 12. 16), 「第7回輸出管理政策対話を開催しました」, 홈페이지: 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9/12/20191216007/20191216007.html (접속일: 2019. 12. 17).

2) 「韓国への措置“対話重ねて見直すかどうか判断”梶山経産相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2. 17).

- 한편 경제산업성 장관은 “대화를 지속한다면 언젠가 규제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, 어제 시점(결과)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다”고 발언[3)]

- 그러나 “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전”이라고 평가

ㅇ 협의에 참석하였던 이이다(飯田)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“협의와 관련, 서로 간의 이해가 증진되었던 부면도 있었지만, 이해가 서로 달랐던 점도 있었다”고 발언[4)]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ㅇ 마이니치(毎日) 신문은 “양국 간 서로 견해가 달랐다”라는 이이다 부장의 발언을 인용, 한국 측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수출관리제도의 정비에 응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며,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서로 다르다고 평가[5)]

-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는 ‘수개월 내 규제 철회’를 요구하고 있으나, 경제산업성 측은 ‘규제 재검토(철회)’에는 몇 년이 걸릴 것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, 양국 간 문제 해결에 드는 시간을 둘러싸고 큰 간극이 있다고 논평

ㅇ 한편 산케이(産経) 신문에 의하면,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출관리상 법제도의 불비(不備) 및 심사제도의 취약성을 개선하고, 그것을 대화로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방침[6)]

---

3) 「梶山経産相「日韓の対話自体が一つ前進」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2. 17).
4) 「日韓局長級協議、対話継続で合意　輸出管理「理解進んだ」」 『朝日新聞』 (2019. 12. 17).
5) 「日韓局長級対話：日韓局長級対話　輸出規制改善は不透明　主張なお隔たり」 『毎日新聞』 (2019. 12. 17).
6) 「日韓、輸出管理で局長級対話　3年半ぶり、次回ソウル」 『産経新聞』 (2019. 12. 17).